

광주·전남 내년도 국비 ‘10조원 시대’ 열었다

시·3조1,457억·도·7조5,131억 ‘역대 최대’

AI·일자리 창출·SOC 등 미래먹거리 가속도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반영됐다.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지역현안은 인공지능, 해상풍력 등 미래먹거리 구체

화와 일자리 창출, 부족한 지역 SOC 확충 사업으로 채워졌다. ▶관련기사 3·5면
지난달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내년도 국비사업은 1,434건 10조6,588억원이 반영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광주시 2022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신규사업 80건 1,172억원, 계속사업 287건 3조285억원을 포함한 358건 3조1,457억원이다. 2021년도 정부반영액 대비 3,819억원(13.8%)이 증액됐다. 2018년 국비 확보 확정액(1조9,743억원)보다 12.4%(1조1,714억원) 늘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성과는 광주

시 미래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AI가전산업 상용화지원 플랫폼 구축(40억원), 자율주행차 대응 편의대상 부품산업 고도화(30억원), 수요기반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33억6,000만원), 태양광이용 70MPa급 이동식 수소충전시스템 개발 실증(21억원), 킥타터연계 생체용 메카노 스마트 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20억원) 등 에너지와 AI, 자동차산업 등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게 됐다.

SOC 등 시민이 편안한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2,750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 개설(40억원),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76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1,800억원), 광주시운전면허시험장 신설(95억원),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176억원), AI기반 원스톱시스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18억원) 등 35건 7,077억원이 반영됐다.

전남도의 2022년 정부예산안 반영액은 총 7조 5,131억원으로 SOC, 미래 신성장 산업 등 지역 현안사업과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핵심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전철화 사업 1,200억원을 비롯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등 SOC 분야는 28개 사업에 8,640억원을 확보했다.

R&D·전략 산업은 초강력 레이저연구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5억원, 수소 추진 레이저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원 등

64건 2,280억원이 반영됐다.

지속가능한 농림·수산 및 해양갯벌 자원화 분야는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4억원, 어촌·어항 재생 시범사업 10억원, 신안 추포도, 순천화포해역 등 갯벌 생태계 복원 38억 원 등 64건에 3,996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주요성과로 관광산업 발굴·조성(15건·772억원), 에너지신산업 및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23건·1,531억원),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13건·380억원) 등을 확보했다.

도는 이달부터 국회 대응체제로 본격 전환하고, 국고확보 국회대응 전략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감담회, 각 정당 지도부, 예결위원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민선7기 지난 3년이 변화와 혁신의 씨앗을 뿌린 시기였다면 2022년은 값진 결실을 맺는 해가 될 것이다”며 “광주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필요 조건이며,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가 권익의 현안사업과 블루이코노미 핵심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다수 반영됐다”며 “추가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고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애란·길용현 기자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관계자들이 박대성 작가의 ‘천년배산’ 작품을 점검하고 있다. 1일 개막하는 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을 주제로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등 전남지역 시·군 일원에서 열린다.

/김생훈 기자

광주·전남서 두 달간 미술축제 열린다

오늘 광주디자인·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개막

1일부터 광주와 전남에서 대규모 미술 축제인 비엔날레가 펼쳐진다.

먼저 올해로 9회째를 맞은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61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디자인진흥원 등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기술과 감성의 의미 있는 컬래버를 디자인을 통해 선보인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변화의 물결 속에 미래 디자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산업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는 디자인·레볼루션(Design)과 레볼루션(Revolution)의 합성어로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끈다는 뜻을 담았다.

행사는 ▲본전시(5개)와 ▲특별전(1개) ▲기념전(4개) ▲국제컨퍼런스 ▲온·오프라인 마켓 ▲디자인체험 및 이벤

트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 폴란드, 이탈리아 등 세계 50여 개 국가, 421명의 작가와 국내외 기업이 참여해 총 1,039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전시 해설 서비스의 어려움은 모바일 전시해설 서비스인 ‘큐피커’로 해소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전시해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관람객들은 니즈에 따라 4가지 버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개막식은 이용섭 광주시장과 위성호 광주디자인진흥원장, 김현선 감감독 등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7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 열린다.

또한 홍보대사 알렉사도 참석해 개막을 축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만큼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주관방송사 광주MBC의 각 공식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로 만나볼 수 있다.

코로나19 탓에 지난해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도 1일 개막한다. 10월 31까지 두 달간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목포와 진도 운림산방 일원에서 펼쳐진다.

여수·광양·나주·광주에서는 4개 특별전, 구례·보성·해남 등 9개 시군 15개 전시관에서는 수목 기념전이 열린다.

15개 국 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수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우리 삶과 어떻게 연계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인다.

모든 행사와 전시는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한다. 현장 관람은 사전예약제와 순차관람 방식으로 운영한다. 해설자 없이 혼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오디오 가이드를 도입하고, 전시관마다 전문방역업체가 하루 1회 이상 소독하는 등 관람객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한다.

개막식은 1일 오후 2시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한중 전남도회의장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연수·길용현 기자

보건노조 총파업 ‘기로’ 코로나 의료공백 ‘비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 간 노정 현상이 결렬되면서 2일 예고된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총 5,100여 명의 의료 인력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비

롯해 의료 공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만, 정부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들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민노총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2일 파업이 진행될 경우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11개, 3개 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전남대병원과 빛고을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천주의 성요한병원,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시립정신병원, 광주보훈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광주전남혈액원이 참여하고, 전남에선 강건의료원, 순천의료원, 목포의료원이 파업에 참가한다.

이번 파업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며, 참여 인력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4,500여명, 6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의사들은 보건의료노조 소속이 아니므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최환준 기자

HOTEL THE STAR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편안함과 서비스로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전 객실 에이스 침대 맞춤 제작 최고급 침구 사용

스탠다드 / 디럭스 투윈 / 프리미엄 디럭스 / 코너 스위트 / 프리미엄 스위트

호텔더스타 본관

호텔더스타 웨딩컨벤션

레스토랑 / BAR

로비

조식당

예식홀

카페

객실

객실

무대

HOTEL THE STAR 영광읍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

웨딩 / 돌잔치 / 각종모임 / 기업행사 예약문의 010-3627-5003